

장문)페미니즘 첫걸음 -섹스와 젠더에 대하여

민주적사회주의자

세줄요약

- 1.섹스는 생물학적 성별, 젠더는 사회적 성별이라는 것이 과거 학설
- 2.사실 섹스는 서구의 남녀이분법적 젠더 관념에서 유래한 것, 인간 신체는 그렇게 쉽게 남녀로 분류되지 않는다.
- 3.시발 페미니즘은 트위터로 공부하는 거 아니다.
젠더감수성, 젠더폭력, 젠더이분법, 젠더권력...

현대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고, 또 가장 많이 오해되고 논란이 되는 개념이 곧 젠더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숙명여대 사건이나 변희수 하사에 대한 국방부의 부당한 해고 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듯, 이는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터프들이 주장하듯 단순한 이론 놀이라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글을 쓰면서

- 1.젠더 개념
- 2.상호교차성
- 3.정치적 올바름
- 4.TERF & 쓰까 페미(라 싸잡혀 불리는 교차페미와 사회주의 페미 등등)
에 대한 글들을 차례차례 쓰려고 했고, 그 중에서도 젠더에 대한 설명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라 생각해 가장 처음으로 쓰고 되었다.

우선, 섹스와 젠더란 무엇인지. 둘의 차이와 관계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 1.섹스와 젠더에 대한 과거의 설명(섹스-젠더 이분법)
예전에는 섹스=생물학적, 신체적 성별, 젠더=사회적 성별 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설명이 익숙하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성 염색체에 따라서 남성, 여성으로 태어나는데 (간성이라는 '사소한 예외'가 있지만) 여기에 남자는 파란색 옷을 입고 활달하다느니, 여자는 분홍색 옷을 입고 내성적이라느니 하는 젠더에 따른 역할이 달라붙어 성차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과거 페미니즘의 주된 입장이었다.
그렇기에 자주 생기는 오해란 이것이다.

"페미니즘이란 남녀로 나뉘지는 사회적 성별인 젠더를 없애고, '진실된' 생물학적 개념인 섹스만을 남겨 남녀차별을 없애잔 주장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아니다.' 물론 이론 공부를 등한시하고 트위터로 공부한 터프들은 여전히 저런 소리를 하곤 한다. 수십 년 전에 폐기되다시피 한 주장이니 트위터에서 찌라시 주워먹고 배탈나는 일 없도록.

우선, 인간 신체는 다양하다. 성염색체에 따라, dna 구성에 따라, 외부성기 형태에 따라, 성호르몬이 분비되는 양상과 수용되는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그 때문에 염색체는 xx인데 음경이 달려있는 사례나(이런 경우에는 본인도 평생 모르고 살 수 있다.), 음경과 질이 둘 다 달려있는 사례, 겉으론 질과 클리토리스가 발달해있는 상태에서 몸 안에 음경과 고환이 잠복해있는 사례 등 남성 또는 여성으로 나눌 수 없는 다양한 신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를 인터섹스(또는 간성)라고 하는데 유엔인권고등판무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적게 잡으면 0.05%에서 많으면 1.7%에 이른다고 한다. 번외로, 하이에나 같은 경우, 암컷 대부분은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

두번째로, 의외로 남성과 여성 이외의 성별이 있다고 간주하는 사회들이 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선 남성의 혼을 가진 여성, 여성의 혼을 가진 남성, 남녀의 혼을 모두 가진 사람을 포함해 5개의 성별이 존재했다. 태국이나 인도, 멕시코 등지에서도 제3의 성별이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몇몇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거나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례까지 있다. 그리고 당연히 현대 우리사회에도 남녀의 분류로 포함되지 않는 정체성을 지닌 젠더퀴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생물학적 성별이라는 섹스를 남과 여로 나누는가? 그 이유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생물학적 성별이라는 섹스에서 젠더가 유래한 것이 아니라, 서구사회의 남녀이분법적 젠더에서 섹스가 유래했기 때문이다.

2.젠더와 섹스의 관계, 그리고 젠더 이분법

막줄을 보고,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남/녀로 나뉜다.' 라는 과학적 사실에서, '세상에 성별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 라는 사회적 구조로 이어진 게 아니라,

'세상에 성별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 라는 사회적 구조에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남/녀로 나뉜다.'라는 과학적 분류가 도출되었다는 거지.

즉, 섹스는 생물학적으로 산출된 지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인종과 민족처럼 말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의 성별을 지정(그러니까 출생신고하면서 성별확인 하는 거, 우리 주민번호 첫자리 결정하는 거)할 때, 의사가 염색체나 호르몬 수치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대강 외부 성기형태만 살펴본 뒤 "고추 달렸네요, 남자. 잠지 달렸네요, 여자."하고 우리의 성별을 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심지어는 아이가 인터섹스로 태어날 경우,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에선 부모의 선택에 따라, 또는 자로 대보고 고추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 성기를 잘라버리거나 꼬매버린 뒤에 남녀 중 하나로 성별을 정해버린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회가 남녀 이분법에 맞춰, 신체를 분류하고 때론 개조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 역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우리 중 대부분은 자신의 성염색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검사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에 자신의 성별이 어떤지 모른다. 분명 통계상 이 갤러리 안에도 한 명 이상의 인터섹스가, 어쩌면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3.결론

지금까지의 설명이 보여주듯 여성과 남성이라는 분류는 매우 작위적이고, 그 경계선 또한 상당히 모호하게 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사고방식이, 사실 인간은 남과 여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여성에게 낮은 지위를 부여한 착취적 체제를 유지존속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런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신체들을 끊임없이 속박하고, 학대해오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염색체가 xx여야 여성이라느니, 트젠은 정신병이라느니, 인터섹스는 단순 유전병이라느니 떠드는 terf들이 모두 여성학 개론 수준의 기초적 지식조차 쌓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만 배제하고 '순수한 여자'끼리 뭉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엄밀하지 못한지, 얼마나 나이브하게 여성에 대한 억압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지속시키는지 알 수 있다.

새벽에 심심해서 휘갈긴 거라 난잡할 수 있다. 일단 개론 수준의 이야기만 쓰고, 나머지 나중에 써야겠음.